

고유가·고물가, 금융 불안 ... 평가지수 석달째 하락 불구

# 소비자 기대지수 10개월째 '낙관적'

## 1월 전망지수 전달보다 1.9포인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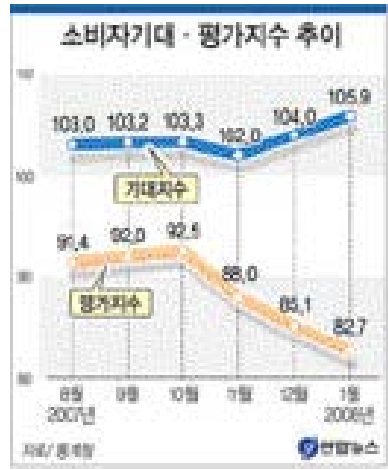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 종합적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낙관적 기대가 10개월 연속 이어졌다. 하지만 고유가, 고물가, 금융시장 불안 등의 요인으로 현재의 경기·생활형편에 대한 평가는 3개월째 나빠졌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기대지수는 전월(104.0)보다 1.9포인트 오른 105.9로,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웃돌았다. 기대지수 105.9는 2002년 9월의 106.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기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6개월 후 경기나 생활형편 등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경기 기대지수가 한 달 사이 102.4에서 105.3으로, 생활형편 지수가 101.5에서 103.4로, 소비지출 기대지수는 108.0에서 108.9로 높아졌다. 소득계층별로는 400만원 이상(110.0→109.5) 계층은 하락했지만 300만원대(107.3→107.8), 200만원대(103.1→106.7), 100만원대(100.2→103.8), 100만원 미만(97.4→100) 등 나머지 계층에서 모



두 상승했고, 특히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은 2002년 8월(103.5)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를 웃돌았다. /연합뉴스

반면 6개월 전과 경기 및 생활형편을 비교, 평가한 소비자평가지수는 82.7로 전월의 85.1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소비자평가지수는 지난해 10월 92.5에서 11월 88.0, 12월 85.1, 올해 1월 82.7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75.9로 전월(79.6)에 비해 3.7포인트 하락했고, 생활형편에 대한 평가지수도 지난해 12월 90.6에서 올해 1월 89.4로 소폭 떨어졌다.

한편 12일 삼성경제연구소의 '2008년 1.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 소비자태도지수는 51.1로 전반기에 비해 2.3포인트 하락해 5분기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미국 경제 침체로 소비심리가 하락세로 반전했다. /연합뉴스

### “한국 성장 둔화 불가피 새정부 성장 목표 난관” 이코노미닷컴 진단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은 12일 미국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한국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며 새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는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코노미닷컴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은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이라며 “미국 대신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중국을 통해 미국 수요둔화의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경제둔화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닷컴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1%로 지난해(4.9%) 수준을 거의 1%포인트 가량 밑돌고 한은과 재정경제부의 전망치인 4.7%에도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글로벌 도시 울산 국내 조선업계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지리한 울산에 최근 외국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등 글로벌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선주·선급사 외국인 감독관 부인들이 자선행사를 갖는 모습. /연합뉴스

## 법인세 감세 효과 5년간 8조6천억

### 인수위, 9월 국회 처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법인세 등의 감세효과가 5년간 8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재정경제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의 인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3개 감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모두 8조6천200억원이 줄어든다.

인수위는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를 25%를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 인하해 20%까지 낮추기로 했으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13%를 2009

년에 12%, 2011년에 11%, 2013년에 10% 등으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9월 정기국회에서 낮은 단계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 중에서 중소기업의 세율 10%를 8%로 낮출 방침이다.

이밖에 인수위는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에 따른 감세는 220억원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 현금서비스·카드론 금리 연 25% ... 4년만에 최저

### 지난해 4·4분기

지난해 4·4분기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금리가 4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사태의 여파로 자금조달 비용이 급증했는데도 대출금리를 낮출 만큼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대 카드사인 신한카드의 지난해 4분기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수입비율이 연 25.99%로 2004년 3분기의 25.77% 이후 4년여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신한카드의 수입비율은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1분기에 20.64%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06년 2분기(28.92%)까지 오름세를 지속했으나 이후 급격한 하락곡선을 그려 26%선 아래로 내려갔다.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수입비율'은 현금서비스 수수료(금리)와 연체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취급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이 내려가면 통상 현금서비스 금리가 내려갔다는 의미가 된다.

KB카드의 4분기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수입비율'도 연 25.03%로 2003년 2분기의 23.72% 이후 4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삼성카드도 연 24.92%로 2003년 1분기의 21.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연합뉴스

## “주유소 판매가 공개 앞서 정유사 부터 가격 공개를”

### 업계 “고유가 책임 소매업체 떠넘기나” 반발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유소 판매 가격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려는데 대해 광주·전남지역 등 전국주유소 업계는 “고유가 책임을 영세 소매업체인 주유소에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결정권자인 정유사와 대리점이 배제된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유소 업계는 전체 사업자 1만2천54명 가운데 83%(1만88명)으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하기로 했다.

주유소업계가 이와 같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격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한재택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정유사와 대리점 공급가격은 공개하지 않고 채산성이 좋지 않은 주유소만 희생양으로 삼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데 과연 그런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

이 인화되었느냐”고 지적하고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허울뿐인 고유가 대책”이라고 성토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숫자가 1991년 3천882개에서 2007년 1만2천139개로 늘어났지만 월평균 판매량은 1992년 2천7드림에서 2007년 1천26드림으로 절반가량 떨어지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주유소 영업이익률은 4.4%로 일반 소매업 10.6%보다 크게 낮으며 월평균 판매량 1천드림인 주유소의 이익률은 1.4%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94개 회원을 보유한 광주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유소 판매가격을 공개하려 한다면 정유사와 대리점 판매가격도 공개하고 주유소 상표표시제 고시를 폐지해 정유사와 대리점의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면서 “또 고율 세금으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을 위해 유통세를 인하하고 불법석유 유통을 근절시키라”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고금리 특판 여파 ... 은행권 ‘뭉치돈’ 몰렸다

### 1월 정기예금 잔액 20조 돌파

지난달 고금리 특판예금의 판매에 힘입어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20조원이나 증가했다.

증시불황의 여파로 특판예금에 일시적으로 ‘뭉치돈’이 몰렸지만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과 같은 시장성 수신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시입출식에금도 크게 줄어 은행권으로 자금이 회귀하고 있다고 보고는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정기예금 증가액은 20조3천883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12월 이후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2006년(16조5천억원)과 지난해(11조8천억원) 연중 증가액보다도 많은 규모로, 은행들이 새해 벽두부터 최고 연 7.0%의 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

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자금유지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시장성수신도 지난달 7조3천983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수시입출식에금이 세금납부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6조7천950억원 급감하면서 전체 은행수신은 12조1천171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은행 기업대출도 지난달 11조4천855억원이 늘면서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한편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12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광의 유동성(L) 잔액은 2천55조1천억원으로 전월 말에 비해 18조원이 늘어 시장의 유동성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 /연합뉴스

## 주식형펀드 유입 자금 규모 크게 줄어

### 5일 73조 ... 해외펀드는 마이너스

국내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유입자금 규모는 크게 줄었으며, 해외 주식형펀드는 5일 연속 자금 순유출이 발생했다.

12일 자산운용협회와 국토농신한증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5일 현재 73조7천709억원으로 전월보다 208억원 증가했다. 이중 재투자분 24억원을 제외한 순유입 자금은 184억원으로 추정됐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대형성장형펀드 중심으로 지난 달 15일 이후 15거래일째 자금 순유입이 이어졌으나, 유입자금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54조1천451억원으로 전월보다 142억원 감소했으며, 재투자 자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글로벌 증시의 불안정 속에 해외 주식형펀드에서의 자금 유출이 지속되면서 대규모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 펀드 약관 위험요소 기재 안하면 퇴짜

### 금융위 공모펀드 약관심사 강화

앞으로 펀드약관에 위험요소가 기재되지 않은 부실한 펀드에는 변경명령이 내려지는 등 펀드 약관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다만 ‘표준펀드약관’과 유사한 약관을 채택한 펀드는 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도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보고의무가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펀드 상품의 약관심사 업무를 개선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구조 등 펀드내용에 대해선 업계 자율성

을 존중하되 판매사가 위험요소 등 필수 정보사항을 충실히 고지할 수 있도록 약관이 설계됐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할 것이라며 테스크포스팀(T/P)을 구성해 펀드 약관 기재사항 개편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약관에 위험요소 등을 기재하지 않은 펀드 약관에는 변경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가 사전에 새로운 펀드의 약관의 법률적합성 등에 문의해오면 협의해줬으나 앞으로는 사전협의의 관행을 없애 약관 보고 후 심사만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산업기반자금 2,680억 지원

산업기반자금은 12일 올해 산업기반자금 2천680억원의 지원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고 취급기관별로 융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은 ▲부품소재산업 등 신성장산업 발전사업 ▲지역산업발전사업 ▲산업인프라

구축사업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등 7개 사업별로 시설, 운전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이 자금의 융자규모는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뀌며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53%포인트를 차감한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1.4분기에는 5.1%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기반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에서 자세한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 냉동창고 등 건축물 감리 3자에 안맞기면 징역형

대형 화재를 일으킨 인천 냉동창고의 경우처럼 건축물의 감리를 제3자에게 맡기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공사시공자 본인이 하거나 동일계열사에게 맡길 경우 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니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태흥이앤에스	상반기 정규직 A/S 기술사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2/14	062-522-9181
(주)아이엔비코퍼레이션	기획홍보팀 직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2/14	062-222-6626
(주)신영하이테크	자동차PRESS금형 설계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6	062-949-8800
(주)동화하이테크	동화하이테크 정규직(관리직)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2/17	070-7093-6322
서울검사(주)	[광주공과대학]정규직 비파괴검사직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2/20	062-369-0790
(주)HRN	[주5일 기본급148만원]SK텔레콤 CRM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2/20	062-529-2671
(주)현우기공	총무 및 전산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0	062-954-4369
(주)오이솔루션	영업관리 대졸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1	062-602-7653
(주)오토콘 본사/공정	지재관리 및 발송고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2/21	062-973-3530
광주열린병원	병원영업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2/23	062-941-5070
태정산업(주)	전기설비직 경력사원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2/23	062-953-2300
김동을찾는사람들	여행사 경력직사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2/23	062-376-7666
(주)동원건설	설계 및 시공 경력직	초대졸/경력2년	2000~2200	02/23	062-514-5068
금아산업개발(주)	전문건설업 전반직 사무관리(경력/회계/보험/노무)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2/23	062-373-144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